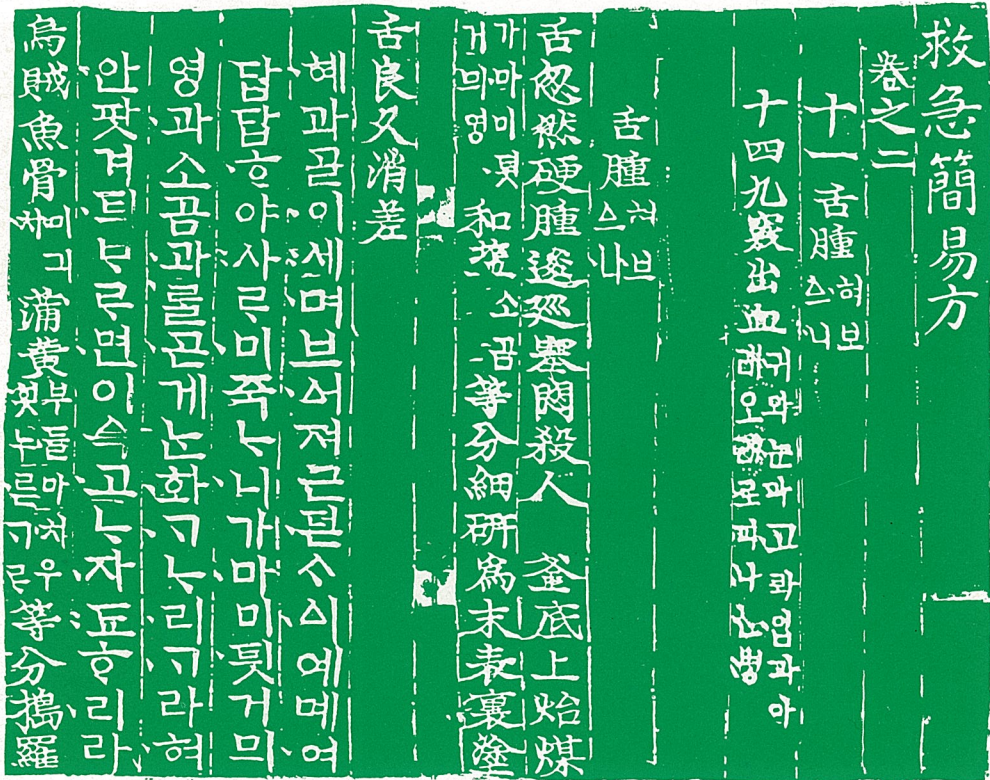


대한치과 의사 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통권 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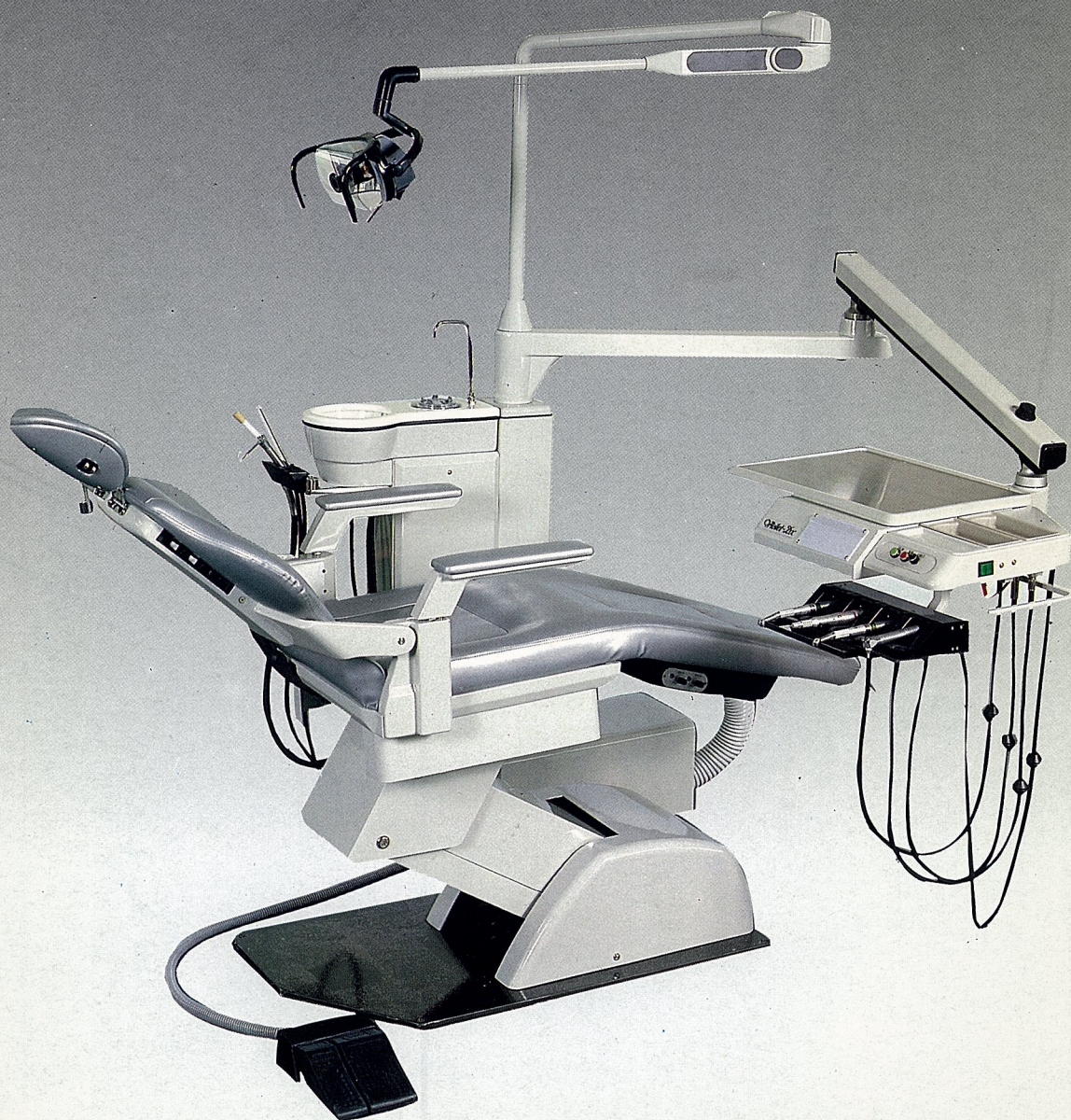
1991

제12권 제1호 · 통권13호 · 1960년 10월 7일 창립

대한치과 의사 학회

VIOLET DX

KOREA YOSHIDA New Chair Mount Unit
VIOLET-DX assures efficient dental
treatment in reliable performance.



● 각 지역 대리점 서울대리점 : 미동양행 ☎ 757-3661 대구대리점 : 한독치재 ☎ 425-4451
부산대리점 : 삼대종합상사 ☎ 87-4459 광주대리점 : 광주치재 ☎ 224-1542 대전대리점 : 한일치재 ☎ 26-5910



株式會社 韓國吉田製作所
THE KOREA YOSHIDA DENTAL MFG.CO.,LTD.

京畿道 安養市 虎溪洞 100番地
TEL : (0343) 53-0940 (代)
FAX : (0343) 53-0943

光州營業所 및 A/S管理
TEL : (062) 222-2783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發刊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91

原 著

○ 韓國의 1960年代 齒科發展의 研究 (15)

○ 義勇國旗 (大韓國旗) 연구 (21)

○ 西域에 關한 醫史學的 研究 (27)

其 他

○ 表紙경의 說明 (35)

대한치과의사학회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12卷 第1号 通卷13号

目次

發刊辭 李丙台 (6)

綜說

- Dr. Horace H. Hyden 洪禮杓 (7)
- 19世紀 矯正齒科學의 發達 金聖男 (9)
- Silk Road의 醫史學的 研究를 위한 基礎知見의 調査와
그 綜合 (第1報) 李漢水 (11)

原著

- 韓國의 1960年代 齒科醫學教育 朴勝五 (15)
- 여용국전(女容國傳) 연구 辛在義 (21)
- 西域에 關한 醫史學的 基礎調査(第4報) 李漢水 (27)

其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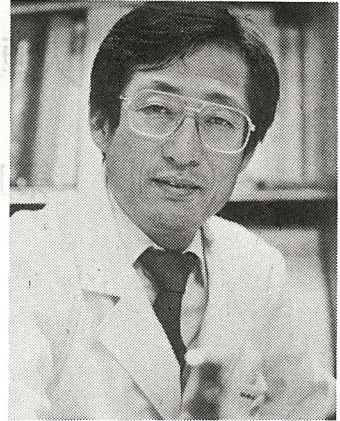
- 表紙컷의 說明 및 學會의 活動事項 (35)

大韓齒科醫史學會 發行

발

간

사



會長 李 丙 台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나 변화하는 느낌이다. 짧게는 지난호의 학회지가 나온 다음부터만 따져도 그렇다.

소련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방문, 노태우대통령의 미국, 소련방문, 그리고 국내로는 지방자치제를 위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그렇다.

그런가 하면 치과의사면허를 주는 국가시험에 많은 치대졸업응시자들이 무더기로 그것도 예상 밖으로 탈락한 사실 이것이야말로 1991년에 기록될 가장 큰 사건이다. 개원가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로 인한 재정 및 운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도 그러하다.

한편, “...북한의 사회복지 시책은 오늘에 와 11년 의무무상 교육제, 무상치료제, 연금, 사회보험, 생활보호, 재해구호, 공적부조, 기타 사회복지적시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상치료제, 북한이 자랑하는 이른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60. 2. 27)에서 처음 선포되었다. 이에따라 치료비와 수술비를 비롯, 입원 및 요양비,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분만비, 불구자들을 위한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 의료경비 일체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치료받게 되었다고 선전해왔다. (『조선중앙년감』, 1982, p245)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주민은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임금에서 1%를 공제당하게 된다...”

민족통일협의회 발행, 「방문자를 위한 북한편감」(1990. 12. 31) p49, 50에서 이러한 내용은 볼 수도 있다.

北韓과 체육분야에서는 단일팀으로 국제대회에 나가고 예술인도 오고 가는데 齒醫學분야라고 해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본다. 더우기 유럽의 동구권 국가가 민주화되고 北韓도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일단 UN동시가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변천하는 시대에, 南北統一을 앞두고 齒科界는 치과계 나름대로 무언가 배려를 하여야 할 때이며 大韓齒科醫史學會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南北이 하나가 되기전이라도 南北 齒科醫師들이 오고가며 學問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綜 說

Dr. Horace H. Hayden

洪 禮 杓 *

미국의 Horace H. Hayden(1769~1844)은 치과의 학 교육의 개조(開祖)이다. 그는 미국의 Connecticut주 출신으로 25세 때에 우연히 뉴욕에서 John Greenwood의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그의 숙련된 치과기술을 보고 감복해서 자기도 치과의사가 되길 결심하였다.

그는 독학으로 치과서적을 모두 읽고 수년간 열심히 임상실습을 하여 1800년을 전후한 때에 Baltimore에 개업했다.

그 곳은 그에게는 친지도 없었고 또 재정적인 기반도 없었으나 연구심이 강했던 그의 기술은 곧 환자들의 신임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는 치과의술이란 단지 직업으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기술이라, 치과의사의 지위향상은 우선 무엇보다도 과학적 교육으로 보다 학문적인 면에서 우수한 사람을 양성할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개업을 하면서 다시 의과대학에 다니며 기초의학 부문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는 대학당국의 인정을 받아 1825년 메리랜드 의과대학 치학과 담당강사로 임명되게 이르렀다. 그는 의학잡지에 치과학 관계의 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그의 학문적 깊이는 큰 존경을 받았다.

Hayden은 1817년경부터 Dental Association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다. 그의 뜻은 1840년에야 비로소 American Society of Dental Surgeons을 창립시켰다. 그리고 그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1844년 그가 타계할 때까지 활약하였다.

그는 A.D.A의 기관지 American Journal of Dental Science도 1841년부터 창간시켰다. 1839년부터 Chapin A. Harris(1806~60)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잡지를 인수받아 그 이름을 바꾸어 기관지로 만든 것으로 치과잡지로선 가장 오래된 것이다.

Hayden은 후술하는 세계최초의 치과교육기관을 창립시킨 이후 교장 겸 교수로 치과학원론과 치과생리학 및 치과병리학을 담당하였다.

현재 그를 미국치과의학의 아버지라 칭송함은 결코 지나친 찬사는 아니다. 1910년 6월 25일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는 그의 공적비를 그의 고향에 건립하였다.

Hayden이 최초의 치과교육기관을 창설하게 된 내막으로는 그가 처음부터 치과만을 교육시키는 학교를 구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메리랜드대학에 치과학 강좌를 신설시킬 것을 제안했는데 그의 제안이 대학으로부터 거절되므로 단독으로 치과교육 전문기관을 창립할 것을 구상한 것이다. 거절된 이

*서울·홍례표치과의원, 본학회 이사

유는 치과학은 매우 좁은 분야에 지나지 못하는 점과 대학은 이미 경영난에 처해 있기에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세계 최초의 발티모어 치과외과학교가 인가된 자세한 날짜는 1840년 2월 1일이고 학교 강의가 시작된 때는 그해 가을 11월 3일이며 제1회 학생의 수는 5명이다. 그들의 교육기간은 만 4개월로 졸업은 2명만이 하였다. 학교의 부속병원이 생긴 때는 1846년이다.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에서는 임상교육을 1852년부터 크게 2가지로 나누었다. 곧 치과기공학과 치과치료학이다. 본교의 박물관은 일찍부터 갖가지 역사적 귀중한 표본들이 많이 모인 점에서 유명하다.

본교 설립이후의 발전은 순조롭지 않았다. 그 초

기는 몇몇 독지가의 헌신으로 지탱되었으나 개업치과의사들의 방해, 즉 당시의 개업치과의사는 개인적으로 치과기술을 희망자에게 교육시키면서 수업료를 받았기에 그 수입이 감소되는 가닭에 크게 방해하게 된 점과, 또 일반의사들은 치과의사를 멸시하였기에 이러한 2가지 문제점이 신설된 학교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본교가 창립된 이후 25년이 경과되었을 때까지도 그 졸업생 총수는 불과 369명이었다.

그 후 본교는 1867년 곧 창립 27년만에야 하버드대학 치과와 제휴하여 하버드대학의 부속치과부로서 발전을 보게 되어 드디어는 미국에서의 대학부속치과부의 원조(元祖)가 되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綜 說

19世紀 矯正齒科學의 發達

金 聖 男 *

고대인은 치열부정의 원인이 된 치아를 수지(手指)로 압박시켜 그것을 정상위치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취하던가 혹은 줄(子)을 이용하여 해당치아의 돌출부분을 삭제하였고 과잉치아의 경우는 발치하였다.

치열교정은 옛부터 시작되어 왔으나 Pierre Fauchard(1678~1761) 시대에 이르러 크게 진보되어 견사(絹絲), 금 또는 은을 이용한 선(線)을 사용하여 교정하였다. 줄을 사용하여 치아의 폭(幅經)을 축소시켜서 그것이 정상위치로 복귀시키기 쉽게 하고 또 외과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힘을 작용시켜 해당치아를 정상적 위치로 복귀시켜 결찰하는 방법도 택하였다. 그리하여 Fauchard는 bar를 사용하는 최초의 교정장치 고안자가 되었다. 이러한 착안은 그 후에 프랑스의 Bourdet와 또 영국의 Thomas Bardmore에 의해 계속 연구되어 발달되었다.

치열교정의 큰 혁신은 1803년 영국의 Josep Fox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bar의 사용과 함께 bar의 좌우 양쪽에 개구장치(gag block)를 달아 교합할 때에 상하의 치열이 접촉될 수 없는 새 방법을 고안하였고 또 돌출된 치아를 후퇴시키는 방법으로서 Skull

cap를 고안하였다. 그의 이 방법은 1814년 Catalan에 의해 외측전위(外側轉位)의 절치(切齒)를 고정시킬 때의 사면판(斜面板 Inclined plane)의 고안으로 발전되었다.

Delabarre는 1819년 탄력선(彈力線)으로써 치아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금속선의 격상 교정장치(格狀矯正裝置 Wire cril)도 발명하였다.

1823년 Desirabode는 다시 bar의 끝에 ferrule를 부착시키든가 혹은 금관을 부착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는데 그는 치아를 결찰할 때에 생사(生絲)나 백금선을 이용한 것으로 전한다.

1828년 Moolye는 결찰사(結繫糸)가 치은부위로 하강(下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Guard hook을 고안한 사실도 기억될만 하다.

치궁확대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의 M. A.Schange로 1841년이다, 이어 1849년 미국의 Dwinelle는 Jack screw를 고안하게 이르렀다.

미국으로 유럽대륙으로부터 새로운 교정지식을 소개하여 미국에서 크게 치열교정이 발달되게 한 사람은 Thomas W.Evans(1823~97년)이다.

교정장치 제작에 있어서 의치제작에서 사용한 증

* 본학회 총무

화러버(蒸和高무)가 이용되기 시작한 사기는 1853년으로 그 최초의 사용자는 Joseph Richardson이다.

근세 치과교정학의 아버지라 숭앙되는 Norman W.Kingsley는 1871년부터 교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1880년에 「구강의 개혁」 Oral Deformities를 간행했다.

본서가 교정치학계의 단행본으로는 효시이다. 그리하여 치과분야에서 교정학은 하나의 분과로 독립을 보았다. U.H.Jackson의 가철성 교정장치가 개량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887년이다.

치아를 이동시킴에 있어서 지속적인 힘을 가하는 방법보다 간헐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보다 좋다는 의견이 J.N.Farrar에 의해 발표된 때는 1876년이며 그가 제창한 힘이란 12시간에 160분의 1 내지는 240분의 1인치 이내라야 된다고 했다. 그의 저서 「치열

부정과 그 교정」 상권은 1888년에 또 그 하권은 1898년에 출판되었다. 모두가 역사적인 책이다.

유명한 Edward H.Angle이 교정에 관한 연구발표를 시작한 것은 1887년부터이다. 그는 대구치에 교정시키는 band에 wire arch를 납착시켜 먼저 치궁을 확대시킨 다음에 치아이동을 시도하였다. 그의 저서 「부정교합의 치료법」 Treatment of Malocclusion이 출판된 때는 1900년이고 또 미국교정치과협회를 창립시킨 때는 1901년이고 또 미국교정치과협회를 창립시킨 때는 1901년이거니와 이어 교정치과학 전문 학술지를 창간시킨 때는 1907년이다. 그가 치아이동을 기도할 적엔 치관만이 아니라 치근까지도 함께 이동시켜야 됴를 주장한 때는 1911년이 된다.

또 그가 창립한 학교 The Angle School of Orthodontia는 1900에 개교했다.

綜 說

Silk Road의 醫史學的 研究를 위한
基礎知見의 調査와 그 綜合 (第1報)

李 漢 水

서 문

이른바 Silk Road(비단길)는 고대 아시아 내륙 횡단의 동서 교통로로서의 근대적 아칭(雅稱)이나, 이에 관한 학문적인 엄격한 정의는 아직 되어있지 않다. 저자는 이미 본 학회지의 통권 10호, 11호, 12호(1989~90)에 3회에 걸쳐 「서역에 관한 의과학적 기초조사」를 보고한바 있다. 그런데 저자의 그 3회의 보고에는 논급되지 아니한 부분, 보다 자세히 밝히면 전기한 논문의 「I. 서론 및 서역에 관한 기초적 일반지견」에 추가되어야 할 지견이 있기에 여기 추가 보고한다.

본고에서 Silk road라 함은 전술한대로 아직은 그 어떤 학문적인 정의를 내린 것을 뜻함은 아니며, 이른바 일반적인 뜻의 그것을 호칭한다.

그리고 본고에선 주로 파미르 고원 이서(以西)에 관한 부분을 다룬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도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 보고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외국의 경우도 의과학 부문에서는 역시 없는 실정이다.

본 문

터어키는 역사에 소아시아 혹은 아나토리아(Anatoria)라고도 하는 지명으로 고대로부터 자주 등장한다. 아나토리아이란 희랍어로서 태양이 오르

는 나라라는 뜻이다. 아나토리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고대로부터 많은 민족의 흥망이 있었다.

아나토리아에는 최초로 헷(Hittites)인들이 거주하였다. 구약성서 창세기 15장 20절에 나오는 헷 족속이 곧 그들이다. 이들은 기원전 2천년경에 히타이트(Hittite)왕국을 건설하였다. 당시는 청동기시대이었으나 이미 히타이트인은 철기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무력으로 바비론의 함무라비(Hammurabi) 왕의 바비론 왕조를 정복하며 지중해 연안을 따라 시리아로 더욱 진출하여 시리아를 두고 이집트와 전쟁하여 역시 승리하였으나, 에게해(Aegan Sea)로부터 이동해온 「바다의 족속」이라는 이민족에게 결국 멸망 당했다.

아나토리아는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리디아(Lydia)라는 국가로 되었고, 기원전 550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탄생되면서부터는 동서양의 문화 교류가 곧 동서양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기원전 500년에는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Darius) 대왕이 아나토리아를 거쳐 희랍을 공격하고, 기원전 334년에는 마케도니아(Macedonia)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이곳을 지나 페르시아를 침공한다. 그 결과로 서아시아 전체

는 헬레니즘(Hellenism)에 몰든다.

이어 유럽은 로마시대가 되면서 아나토리아는 물론 시리아도 로마로 예속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시리아 총독은 로마로부터 시리아로 파견되어 안티오키아(Antiochia)에 있었다. 이 로마 총독은 시리아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때에 로마에서는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1세가 황제가 되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며 왕도를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로 삼는다. 곧 현재의 이스탄불(Istanbul)이다. 대체로 4세기초의 일이다.

한편 이러한 때의 서아시아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서아시아 영도를 이어받은 것은 세레우코스 왕조이었으나 차차 헬레니즘 문화에 저항하는 이 지역 일대의 민족독립운동에 봉착한다.

먼저 기원전 247년, 북방 이란의 유목민이 처음 독립하여 파르티아(Parthia) 제국을 건설한다. 이것이 안식국(安息國)이다. 파르티아는 점차 서방으로 확장되어 세레우코스 왕조를 서쪽으로 밀어내어 메소포타미아를 영토로 삼게되며 다음에는 다시 시리아와 아르메니아(Armenia)를 두고서 로마와 싸운다. 그러나 그 전쟁은 대체로 로마가 우세하였다. 기원후 226년 사산조 페르시아가 되어도 계속 로마와는 싸우게 되는데 당시 그들은 동방의 강대국이었다. 기원후 260년에는 시리아의 에데사(Edessa)에서 로마황제 바레리아누스와 7만의 로마군단을 포로로 하였으나 아나토리아(터어키)만은 끝내 점령하질 못했다.

하지만 로마제국도 쇠퇴하여 동로마 곧 비잔틴(Byzantin)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왕도를 삼고 아나토리아를 지키기 위해 사산조 페르시아와 전쟁을 계속한다.

630년에는 마호메트(Mahomet)가 메카로 들어간 이후 약 10년간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그후 그의 후계자들은 우선 시리아를 침공하여 비

잔틴(Byzantin) 군을 유럽으로 쫓으며, 그 후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을 정복하고, 642년 네하벤드의 싸움으로 신흥의 아랍군은 사산조 페르시아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한다. 그리하여 사산조 페르시아의 황태자인 페로오즈는 다수의 부하와 함께 당(唐)의 장안(長安)으로 망명한다.

751년에는 중앙아시아, 다시 말해서 파미르 고원 서쪽 일대의 세력 문제를 놓고 당군(唐軍)과 아랍군이 현재의 발하시호(Lake Balhash)의 남쪽의 타라스 강변에서 격돌한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강대한 당군이 큰 패배를 입어 그 이후로는 중국 한(漢)민족이 이 지역에서는 후퇴하는 계기가 된다.

이스람군은 또 서쪽을 향해서는 이집트로 진출하여 세계제국이 된다. 결국 비잔틴 제국은 퇴각하고 서아시아는 본래의 상태로 복귀될 것도 같았으나 그러나 이스람군은 끝내 아나토리아만은 점령할 수가 없었다.

그 까닭은 우선 아나토리아의 남북은 크고도 높은 두개의 산맥이 막고 있으며 동시에 그 사이는 고원지대로 복잡한 지세를 이루었기에 매우 방어하기가 쉬운 점이다. 비잔틴 제국으로서 보면 아나토리아를 탈취 당하면 콘스탄티노플도 쉽게 점령되기에 필사적으로 방어했던 것이다.

아라비아인은 셈(Semite) 민족에 속한다. 셈이란 구약성서 8~10장에 있는 노아(Noah)의 홍수, 노아의 아들 셈과 그 자손들에 유래되는 이름이다. 셈민족은 본시 아라비아 사막지방에서 다수의 부족으로서 유목생활을 하여 극히 가난하였기에 그들은 북방의 비옥한 평야와 오아시스 그리고 도시문명을 동경하여 각 부족마다 파상적으로 복상하였다.

처음으로 기원전 3500년경 한 부족이 슈메르 문화를 동경하며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한다. 곧 앗가도인이라든가 바비로니아인이라 불리우는 것이 이를 말한다.

이어 기원전 2500년경에 이주한 부족은 아랍

(Aram)인 이스라엘인이다. 또 기원전 500년경에는 나바다이인이, 최후로 기원후 630~650년에는 이슬람 교도인 아라비아인이 복상을 시작한다. 따라서 셈 지역은 현재의 메소포타미아(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아라비아를 뜻한다.

셈 민족은 빈한한 유목민족으로서 비록 그 문화 수준은 후진민족이었으나 다만 종교라는 측면에서 크게 세계적인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모두가 셈 민족이 전파시킨 종교이다.

이들 종교는 모두가 다른 민족들의 그것과는 다른 공통점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곧 절대유일(絶對唯一) 신을 신봉함이 그것이다.

이제 의과학 연구자들에게 먼저 매우 잘 인식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티그리스 강의 상류 동측으로부터 페르시아 만의 동쪽을 따라 제그로스(Zagros)산맥이 주행하고 있다. 이 산맥이 어느 때에나 세계사, 문화사 그리고 민족사를 연구할 경우는 중요한 구획선이 된다. 제그로스 산맥의 동쪽은 페르시아인들의 세계이고, 그 서쪽은 셈인들의 세계인 점이다.

페르시아인은 인도·유럽 어족(語族)으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일찍부터 이들은 이란, 인도, 아프가니스탄, 투르키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텐산산맥(天山山脈)과 쿤룬산맥(崑崙山脈) 사이의 타림분지 등에 거주하였다. 페르시아인은 희랍인과 동일한 계통의 인종인 것이다. 이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페르시아(이란)인은 일찍부터 고도의 그들 문명을 자랑하였는데 그들의 종교는 배화교(拜火教·陰陽教·조로아스터教·Zoroastrianism)라는 선악이 원론(善惡二元論)인 다신교(多神教)이다. 바로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인도의 불교, 힌두교 등은 모두가 다신교라는 점이며, 더우기 제그로스 산맥이동(以東)의 종교에는 그 농담(濃淡)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가 윤회사상(輪廻思想)이 포함된 사실이

다. 이러한 사상을 내포하게 된 이유를 규명하긴 지대한 난제임에 틀림이 없으나 우선 추찰하기 가능할 점으로 역시 그 민족의 거주지 자연풍토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들의 의설(醫說)과도 연관성이 있으리라.

자연 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명확하여 동계에는 생물들이 죽고 춘계엔 다시 탄생하는 생명의 부활 현상을 볼 수 있는 풍토환경에서는 종교까지도 생명의 윤회를 설득하게 된 것이 아닐까, 또 건조된 사막이나 극히 황폐된 고원지대의 환경속에서는 절대적인 유일신을 믿으면서 엄한 절대적 율법으로 그들 생활의 규범을 잡지 않을 길이 없었으리라.

여하튼 이슬람 군단은 순시에 세계제국이 되나 그래도 아나토리아로만은 진출을 하지 못했다. 아나토리아가 아시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터키인의 등장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터키인은 본시 서아시아에는 없던 동양민족이다.

이슬람 제국도 「원손에 코오란, 오른손엔 칼」을 들며 아라비아말(馬)로 세계를 제패했으며 앗파스 왕조 때에 이르러선 사라센 제국이라 불리우던 그들이 다시 이슬람 제국이라까지 불리게 될만큼 아라비아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 전체를 위한 좋은 정치를 했으나 그러나 그들 왕조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8세기말에는 지방 각처에 지방왕조가 출현한다. 최초에는 이란의 호라산 지방,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의 서남지방 등에 지방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터키 민족이 세운 왕조가 많게 된다.

여기서 터키의 역사는 시작된다. 현재의 터키 공화국 건국은 552년인데 이 때에는 아직도 아나토리아에는 로마인이 있을뿐 터키인은 거주하지를 않았다. (계속)

신간안내 / 李 漢 水 著

韓國齒學史

이 책을 내면서

저자는 먼저 이 책을 우리 나라 치과의학 발달을 위해 크게 헌신하시고 이제는 그 존함마저 잊혀진 우리 모든 선배님들 영전에 바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이 그 여러 선배님들의 공덕을 가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잘못을 어찌 사함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마저 품어 본다.

이 책은 저자가 이 강산의 치과의사로 서 하나님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주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하는 뜻에서 썼다.

본서의 내용은 196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위시한 연세대학교·경희대학교·조선대학교·연세대학교 의학교수원원 치과위생과 등에서 치과의사학 강좌로서 강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본서의 구체적인 집필의 착수는 각 대학에서 저자가 담당했던 강의 내용을 일단 1972년부터 서서히 정리하면서부터이다. 1983년에는 당시까지 일단 중단되었던 대한치과의사학회 학회지의 발행이 속간됨에 따라 저자는 그때부터 1987년까지 만 5년간을 전후 5회에 걸쳐 정리되었던 논문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후 일단 발표하였던 내용들을 재차 정리하며 공인된 학회를 통한 학문적 토론과 비판을 거쳐 이제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되었다.

요즘 치과의사학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진 점은 이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학이 치과의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분과로서 깊이 인식되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줄 안다.

치과의사학 강좌는 현재 국내의 모든 치과교육기관에 있다.

韓國齒學史

李 漢 水 著

서울대학교출판부

原 著

韓國의 1960年代 齒科醫學教育

朴 勝 五 *

序 言

한국에 있어서 치학교육의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치의예과 제도가 도입 실시된 1958년도로 기산할 수 있음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치학은 자연과학의 일분야로 그중에서도 생명현상 질병관리를 목적으로 삼는 의학학의 응용과학이며 구강내 질병을 치료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회구하는 생명존중의 의과학이다.

이와같은 치학은 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과학의 형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초과학의 형성과 더불어 인격교양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양인의 인격형성을 동시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치과대학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 즉 예과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니 한국에 있어서 그 최초는 1958년도에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 설치의 근거는 물론 대통령령에 의한 문교부 대학설치령에 의한 것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60년대라함은 1962년부터 1968년까지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의 국내의 정치적 변혁은 5·16군사혁명(1961. 5. 16)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문공위원회가 설치되어 대학교육정책이 군인들에 의하여 획일적을 입안 시행되었음도 사실이다.

그 예로써 대학입시는 전국대학을 학교위주로 분류하여 선 학과지원 후 대학선택의 제도를 최초로 채택하였고 졸업시는 학사고시제도라는 일종의 졸업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지속되지 못하고 곧 폐지되었음도 그 증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때의 치대예과는 전국적으로 서울대학교에만 설치되어 있는 유일한 학과였다. 즉 치의예과 선택의 길은 서울대학교 선택의 길이기도 했으나 합격권의 점수와 경쟁비율은 서울대학교 11개 단과대학(1962년 당시) 모든 학과중 중간위치쯤 되었다. 또 1964년에는 한미행정협정을 촉구하고 주한 미군의 재판권을 한국법원에 이양하라는 대학가의 격렬한 시위와 한일회담을 「굴욕외교」라고 규정짓고 이를 반대하는 격렬한 대학가의 시위가 2년간 끊이지 않다가 드디어 1965년 6월에 한일협정은 정식 조인되고 국교가 정상화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변혁속에 또한 미전투부대 병력 약 2천명이 월남으로 파병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군과 함께 본격적으로 치과군의 관의 월남파견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해 치과군의관은 비둘기부대를 시점으로 이동 외과병원, 후송병원 그리고 맹호부대, 청룡부대, 십자성부대 등에 소속되어 각 사단에 치과의료단을 구성하고 근무하게 되었으며 주월사령부에도 치과군의관이 상주하게 된다. 이러한 국내외적 격변의

* 서울·朴勝五齒科醫院, 本會副會長

변화속에서도 치과대학 및 치의예과의 학사일정 및 커리큘럼 규정은 차질 없이 착실하게 진행되어 대학수업 및 실습 역시 혼돈과 휴강 없이 진행되었음은 치학발전에 하나의 기여일 수 있다.

本 論

1962년 당시 서울대학교 치의예과는 그 2년간을 문리과대학(학장 : 이인기)에 소속하게 되었고 그 공식명칭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였고 과주임도 물론 문리과대학 교수였다.

커리큘럼도 문리과대학 교무과에서, 학점관리도 문리대 관할 권한이었다. 치의예과의 교육연한은 2년으로 1학년과 2학년으로 구분되며 출석이 엄격하였고 이수과목이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1학년 이수과목으로는 영어, 수학(1학기 미분·적분) 수학(2학기, 통계, 확률, 수열), 국어(현대문 위주, 교수 : 이기문), 독일어, 식물학(교수 : 이민재), 일반동물학(교수 : 하두봉) 등의 강좌가 있었고 실습과목으로는 식물학 실습, 동물학실습, 무기화학실습 등이 상당한 학점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물리학, 원자물리학으로 물리학은 별도로 텍스트와 교수가 구분되었고 또한 특이하게도 심리학 강좌도 있었고 철학개론 및 채육학 및 체육실기가 있었다.

2학년 이수과목으로는 영어(교수 : 문상득), 불란서어, 라틴어 등의 강좌가 비중 높게 배정되어 있었고 자연과학 계통으로는 유기화학 및 유기화학실습이 강조되었고 역사학으로는 문화사(교수 : 민두기) 강좌가 있었으며 그 강의와 학점은 매우 엄격하였다.

시험은 학기말시험과 학년말시험으로 구분되며 1학기 중간시험과 2학기 중간시험제도가 있었다. 한 학년을 통하여 과목당 1학기 성적과 2학기(학년말) 성적 평점이 D학점(평점 0점)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전과목 평균점이 C학점(평점 1.0이상) 이상이

어야 진급 및 본과로 진학할 수 있었다.

예를들면 1학기때 수학생적이 E학점이면 2학기때 수학생적은 최소한 B학점을 취득해야 평균 D가 되고 A학점이면 평균 C가 되어 진급 및 진학이 가능했던 것이다. 전 과목 평균성적은 전부 A나 B학점 이상 우수한 성적이되어도 단 한과목이라도 평점이 D미만의 과목이 발생하면 탈락되는 예가흔히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치의예과 입학 정원 100명은 예과를 수료할 무렵이면 상당 수가 탈락되는 것이 60년대 치예과 교육의 현실이었다. 학점은 통상 A학점에서 B, C, D, E 그리고 F학점의 6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A학점은 90점 이상~만점, B학점 80~89점, C학점 70~79점, D학점 60~69점, E학점 50~59점, 그리고 F학점은 50점 미만으로 규정되었고 재시험이나 추가시험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치의예과의 위치는 청량리 전차종점, 청량리 역사 건너편에 위치한 일정시의 경성 제국대학 예과부 위치이며 붉은색 벽돌 3층건물이었다. 실험실 건물은 강의실 뒷쪽에 독립건물이 존재하였다. 이 위치에 의과대학 의예과와 같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1991) 위치로는 청량리 흥능입구 로터리에서 시조사건물 중간위치쯤 될 것이다.

이상 60년대초 한국 치과교육에 있어서 기초 및 교양수습 및 습득과정인 예과2년 동안의 학년별 이수과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년 과목	치의예과 1학년	치의예과 2학년
강의과목	국어(교수 : 이기문)	영어(교수 : 문상득), 불어 라틴어
	영어, 수학(미분, 적분 1학기) 수학(통계, 수열, 확률 2학기) 일반동물학(교수 : 하두봉) 일반물리학 · 원자물리학, 채육학 일반화학, 심리학, 철학개론	동물해부학, 유기화학 문화사
실습과목	동물학실습, 식물학실습 일반화학실습	동물해부학실습 유기화학실습

치과대학은 1964년 당시 서울 중구 소공동 111번지 구한말 「저경궁」터에 위치하였으며 현재 한국은행 본점의 소공로쪽에 위치하였던 자리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위치이며 부속병원도 그 건물에 위치하였다.

구 반도호텔(지금의 롯데호텔)과 비슷한 시기인 일제시대 때 지었던 비슷한 양식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1층은 교수실, 2층은 부속병원이었고 3층일부는 부속병원 및 강의실이었다. 4층 또한 강의실 및 강당이 자리잡고 있었고 5층은 도서실 학생회의실 및 기타 부속실로 배치되어 있었고 66년경에 정문입구 쪽에 세미나실 건물을 신축하여 많은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64년도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은 치학계통의 학과보다는 일반의학 계통의 기초의학 강좌가 강화되었고 그 실습 또한 많은 시간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일반의학의 기초학과 강좌 및 실습교육은 주로 의과대학 교수진에 의뢰되었고 그 실습장소 또한 의과대학 실습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소공동에서 강의가 끝나면 실습은 개인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연건동 현 의과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치과대학 1학년 과정에서 기초의학 과목은 생화학(교수: 성낙웅), 미생물학(교수: 이초왕), 생리학(교수: 남기용), 일반해부학(교수: 김명국), 세균학, 일반조직학(교수: 황성명)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생화학 실습, 미생물학 실습, 생리학 실습 등은 의과대학에서 수업되었고 일반해부학, 일반조직학 등은 치과대학에서 실시할 수 있었다.

또한 치과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초의학에는 구강조직학(교수: 김영창),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강사: 윤신현) 등이 있었으며 특히 구강조직학 실습은 현미경 실습으로 철저한 수련이 있었다.

치과대학생으로서 또는 치과의사로서 가장 밀접

한 과목이랄 수 있는 치과재료학(교수: 선우양국)이 본과 1학년에 강의되었으며 그 재료학 실습 또한 4층 실습실에서 집스 프리닥트(플라스터), 모델링 콤파운드, 아가타입의 인상재 등의 실습을 시행하였다.

모델링콤파운드를 이용하여 자기의 엄지를 인기하여 세밀한 플라스터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 및 완성에 실습의 한 예이기도 하였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당시에 국립대학교 치과대학에 의사학(외래교수: 이한수) 강좌가 64년부터 개설되어 시행되었으며 치과대학 1학년 커리큘럼 과정에 엄연한 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해부학과 구분하여 치아형태학 강의가 강의되었고 치아형태학 실습(교수: 유종덕) 또한 시간수도 다른 과목에 비하여 많이 책정되었고 실습량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치아에 걸쳐서 충분한 비율을 찾아하였다.

그리고 시간수는 비록 많지 않았지만 일반의학 임상학과로 일반내과학(교수: 허인목), 일반외과학 강의가 있었다.

2학년 교과과정에서 들어와서는 일반의학 과목의 커리큘럼은 거의 없어지고 일반병리학 및 일반약리학(교수: 정동균) 과목만이 존재하게 되고 거의 모든 학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치학에 직접 관련되는 학과목으로 짜여지게 된다. 즉 총의치학(교수: 심태석) 및 청의치학 실습, 국부의치(교수: 이영옥), 국부의치 실습(교수: 김인철) 그리고 계속가공의치학(교수: 장완식), 계속가공의치 실습(교육: 신범철), 보존학(교수: 김수철), 보존학 실습, 소아치과(교수: 차문호), 소아치과 실습 등은 치과학의 백미로서 치과임상과목의 주종을 이루게 되고 이는 치과대학2년(본과 2년) 커리큘럼의 대종인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이들 임상과목에 비견하도록 중점을 두었던 과목은 구강병리학(교수: 김동순), 구강병리학 실습(교수: 임창윤) 및 구강약리학(교수:

이재현), 교정학(교수: 조희원)은 실습을 외면한채 교정학 서론인 골격의 성장과 발달과정 및 세팔로 강의에서 그쳤고 교정학 실습(교수: 서정훈)은 가철성 교합장치 기초에서 그친 불행한 시대였다.

즉 60년대 치과교육에서 가장 불행했던 치과학과목과 실습과목을 지적한다면 치과교정학이었다. 시설은 미비, 교수진 확보의 미비, 교실설치의 미비, 외국학회와의 교류 전무 등은 이 시대가 낳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었다.

이에 비한다면 오히려 소아치과 실습(교수: 김진태)에서 가철성 교정장치를 보다 많이 접하게 되었으며 소아치과 강의(교수: 차문호)는 보다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실례를 중점적으로 하는 강의를 실시되었다. 또한 2학년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별도로 염증학(교수: 조한국) 강의가 강조되었고 구강약리학은 일반약리학과 함께 실습이 계속 시행되었다.

3학년 교과과정은 2학년 강의이론에서 보다 임상적인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2학기부터는 부속병원에 내려가 임상실습 즉 환자와의 직접 접촉 및 차팅의 실시, 환자 안내 관리 및 엑스레이촬영 및 환자 메네지먼트에 접하게 된다. 즉 임상총의치학, 임상국부의치, 임상계개학, 임상소아치과학 등으로 강의가 짜여지며 3학년에서의 새로운 강좌도 입은 근치학(교수: 김영해), 구강진단학(교수: 김주환), 구강위생학(교수: 김주환) 및 치과방사선학(교수: 안형규)의 강의가 임상과 가깝게 강의되고 있으며 구강위생학은 훗날(70년초) 예방치과학 강좌로 발전되었다.

일반 마취학은 일반약리학의 한 섹션에서 자세하게 강의되고 있었지만 치과의학과와 밀접성에 비추어 3학년 과정에서 국소마취학(교수: 김용관) 강의를 따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4학년 커리큘럼은 모든 것이 병원 실습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며 보다 많은 환자를 메네지먼트하여

각 과목별로 소위 케이스를 많이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지 오전 1시간만 강의를 있게 되는데(이는 부속병원 개원 시간인 10시 이전 즉 9시부터 10시까지) 이때의 새로운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영양학(교수: 성낙웅) 조제학이 있고 이비인후과학(교수: 선덕영) 및 의사법규(교수: 오웅서) 강의가 있었으며 치과학파로는 발치학(교수: 이춘균) 등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형설의 6년이 지날무렵 60년대 한국 치과대학생들은 앞날을 설계했다. 이때가 아마 대학에 들어온지 만 5년 반이 지나는 본과 4학년 2학기 무렵이다. 이때는 졸업후 설계가 보통 대별하여 2가지로 나뉘인다. 그 하나가 대학병원에서 인턴코스 및 대학원코스(이때는 인턴자격시험과 대학원 시험 자격이 동시에 부여된다.)로 남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그 다음은 먼저 중병의 의무를 필하고 보다 넓은 세계를 개척하려는 뜻에서 군의관 코스를 밟는 경우이다. 여기서 보다 넓은 세계란 한국치과의학 보다 선진의 과학문명을 밟는 미국, 독일, 불란서, 일본 등으로 치과의학 유학을 가려는 뜻과 또는 먼저 병무의 의무를 필하고 의사로서 최고의 이상이라 할 수 있는 개업의를 희망하는 뜻의 구별이다.

60년대말의 경우 한국치과대학 졸업생은 치과군 의관 또는 대학병원의 인턴으로 거의 모두가 자기 이상, 선택에 의하여 갈 길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국가시책에 성공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치과의료 보건정책 수립에 정부가 취해야 할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즉 치과 의사 인력공급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치과수요 인력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양질의 치과의사 교육라는 정책면에서도 어느정도 성공이라 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민 몇 사람대 치과의사 1인이라는 물리적이고도 산술적인 치과의 수요공급 정책은 국민에게 양질의 치료 혜택을주기 불가능하며 또 치과의사 의권 수립에도 부정적이고 치과대학 교육

발전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結 論

1. 1960년대 초 한국에 있어서 치과교육기관은 국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유일한 대학교육기관이었다.
2. 1960년대 한국에 있어서 치과대학 교육제도는 치의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교육 시행되었으며 치예과 2년의 교육은 문리과대학 치의예과로 소속되어 그곳 대학장으로부터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3. 치의예과의 학점제도는 학기 및 학년제로서 1년간 평균학점 B학점 이상, 과목당 0학점 이상이

되어야만 진급·진학할 수 있었다.

4. 1960년대 치과대학 커리큘럼은 일반 의학 과목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에 의하여 대부분 참여했으며 실습 또한 의과대학 실습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5. 1960년대 한국에 있어서 치과대학 커리큘럼 강좌 과목과 1990년대 현재 치과대학 커리큘럼 강좌 과목은 그 내용과 과목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다.
6. 1960년대 한국에 있어서는 치과대학 졸업생 배출과 국가 수요공급 인력의 균형면에서 문제점은 없었다.

(※본문중 교수라함은 그 당시의 직함을 뜻한 것이 아니라 담당교수라는 뜻으로 편의상 표기한 것임.)

지구조가 포함됨.

convenience or convenience jaw relation, convenience relationship of teeth). 편의교합(便宜咬合), 중심위로 깨구할 때 교합간섭이 있어도 최대한으로 많이 접촉하는 상태로, 중심교합에 비하여 전방위·측방위·전측방위 운동이 형성될 수 있음.

coronary o. 관상동맥혈전증(冠狀動脈血栓症),
관상동맥폐색.

customized o: 맞춤형. 매식학에서 논의하는
과학.

distal o. 원심교합(遠心交合), 후교합(後交合). 교합선의 후측에 있는 치의 교합. Angle의 한 경

비중심교합(非中心咬合). 중심교합

선천성비중심교합(先天性非中心咬合), 사면교합면접촉(斜面咬合面接觸)에 의한 고유감각기전(固有感覺機轉 proprioceptive mechanism) 때문에 오는 비중심교합.

edge-to-edge o. 절단교합(切斷咬合), 중심교합
상태에 있을 때 전치가 절단끼리 접촉하는 교합.

end-to-end o. $\nabla \Rightarrow$ occlusion, edge-to-edge

functional a. 기능교합(機能咬合). 치아가 기능
을 발휘하는 동안 어떤 기능적인 범위 안에서 대
합력과 접촉되는 교합으로, 외상(外傷)을 일으
키지 않는 상태의 교합.

gliding o. 환주교합(滑走咬合). 치아가 운동중에 접촉하는 교합.

group function o. 군기능교합(群機能咬合).

hyperfunctional o. 과기능교합(過機能咬合).

ideal-o. 이상교합(理想咬合). 치아가 저작·발음·심미 등 모든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교합형태로, 실제로 존재한다. 치 보라는 교합을 논하고 토론할 때 기준이나 표준을 삼는 교합. ⇒ occlusion, normal

infra-o. 단소교한(短小咬合).

key to 0. 제 1 대 구치 (第一大臼齒).

labial o. 순측교합(唇側咬合), 교합선의 전방, 즉 입술쪽에 있어서의 교합, Angle에 의한.

lateral o. 측방교합(側方咬合). 하악골이 측방은
동을 있을 때, 상하악의 대합치끼리 교합하는 것
으로, 각입측에서는 견측교두끼리 교합하며 한
형측에서는 하악대구치 협측교두와 상악대구치
성측교두끼리 직결함.

lingual c. 설측교합(舌側咬合). 교합선의 내측, 즉 설측에 있어서의 교합. Angle에 의한.

malfunctional o. 기능부전교합(機能不^{신각어}調).
전손치(缺損齒), 경사지거나 일전(捻轉)된 치아
와 같은 요소로 인하여 정상적이지거나 교합의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합.

mesial o. 근심교합(近心咬合).

neutral o. 중성교합(中性咬合). ⇒ occlusion, normal

normal o. 정상교합(正常咬合). 이치 또는 대합
치와의 관계가 아무런 이상이나 장애 없고 습
관적 위치에서 있을 때의 교합

physiologic 생리학적(生理的) 정상
(咬合). 두개골(頭骨)·상악(上顎) 등 모든 것이 정
상적으로 발달하고 정당한 기능에 선입합되었
을 때, 때때로 상·하 교두(咬頭)의 면들이 정상
관에 있는 상태로, 교합이 조화롭이
고 이끼에 관계되는 모든 조직과 구조에 있
는 열증이나 기타 이상이 없는 교합.

pathologic o. 병적 교합(病的咬合), 지지 감수(支
持組織)이나 악관절(顎關節)에 철을 넣으려
수 있는 교합관계(咬合關係)에 관한 박사학위

physiologic o. **의리적교합**(生理的咬合). 저작기
계통(咀嚼器系統)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
며 치아지지조직에 병변을 일으키지 않음. 교합

p. normal occlusion = normal, physiologic

plane of o. $\Rightarrow$ plane, occipital

posterior o. 후방교합.

postnormal o. $\Rightarrow$ occlusion, distal

prenormal o. $\Rightarrow$ occlusion, mesial

protrusive o. 전돌교합(前突咬合). 하악이 중심
위로부터 전방위를 취할 때 치아간의 교합.

rest o. $\nabla \Rightarrow$ position, rest physiologic

retrusive o. 후퇴교합(後退咬合). 하악이 중심
위에서 후방위를 취할 때 치아간의 교합.

o. rim $\Rightarrow$ rim. occlusion

reversed o. 반대교합(反對咬合).

spherical form of o. 구면교합(球面咬合). Monson이 주장한 것으로, 교합면이 직경 8인치인 가상의 구면에 일치한다는 치아의 배열.

supra-o. 과장교합(過長咬合).

o. table $\Rightarrow$ table, occlusion

terminal o. 최종교합(最終咬合). 평면적접촉 또는 교합이 최대한으로 되는 때합치의 교합면간 관계.

traumatic o. 외상성교합(外傷性咬合). 치아·치주조직·치조골 등 구강내 조직에 과도한 힘을 주어 손상을 야기시키는 교합. 때에 따라서는 격심한 통증이 오고 특히 편측성이 특징임.

traumatogenic o. 외상원성부정교합(外傷原性不正咬合), 잔존치조제·치아 및 기타 조직에 상처나 외상¹⁾ 일으킬 수 있는 부정교합.

李 兩 台 演 義 작업교합(作業咬合). 하악이 내측으로 이동되는 쪽에서 상하악치아간에 오는 교합면 접촉으로, 전방이나 후방에서 관찰하면 상하악치아에서 협측교두는 협측교두끼리, 설측교두는 설측교두끼리 접촉하고, 측면에서 보면 상하악치아교두는 하악치아교두의 후방에 위치함. 즉 상악치아교두의 근심경사면은 대합치교두의 원심경사면에 접촉하고 따라서 상악치아교두의 원심경사면은 대합치의 근심경사면에 접촉함.

原 著

여용국전(女容國傳) 연구

辛 在 義*

1. 서언(序言)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의 여용국전(女容國傳)은 영, 정조(英, 正祖)대의 실학적(實學的) 저술(著述)의 하나이다. 그가 비록 유교적(儒教的) 문화관(文化觀)과 정주적(程朱的) 역사의식으로 실학(實學)이나 심성학(心性學)에 관련된 구체적인 논저(論著)는 거의 없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명정학(明正學) 식사설(熄邪說)한 조신(助臣)으로서 평가되었던 만큼 전통주의(傳統主義)가 한창 고취되던 영, 정조(英, 正祖)대의 시대성을 대변하였으므로 실학자(實學者)이라기 보다는 심성학자(心性學者)이었다.

그러나 그의 심성학은 지금까지의 동국(東國)의 이학(理學)이 이기(理氣), 성명(性命)만을 능사(能事)로 하는 것을 현공설화(懸空說話)이니 창가(倡家)의 담론(談論)이라고 혹평하였고, 그 자신은 실심(實心), 실리(實利), 실공(實工)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심성학은 하학(下學)을 존중하고 실공(實工)에 힘쓰는 것이므로, 이것이 실학(實學)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2. 시대(時代)와 생애(生涯)

순암(順菴) 안정복(安正福)은 숙종(肅宗) 38년(1712)에 제천(提川) 유원(楸院)의 외가(外家)에서 안극(安極)의 아들로 탄생하여 정조(正祖) 15년

(1971)에 광주(廣州) 덕곡(德谷)에서 80년의 생애를 끝맺었다. 그는 현, 숙종(顯肅宗)조의 치열한 당쟁기에 정권에서 밀려난 남인(南人)의 가정에서 탄생하였고 5세에 상경했다가 6세에 영광(靈光)으로 가야 했고, 9세에 다시 서울로 와서 10세에 입학하였으나 14세에 다시 조부의 임지인 울산(蔚山)으로, 15세에는 조부의 해임으로 무주(茂州)로, 16세에는 조부가 돌아가심으로서 다시 광주(廣州)로 이사하여 머물게 되었다.

이후로 그는 학문에 정진하여 저술과 수학을 병행하였다. 그는 29세에 벌써 하학지남(下學指南)을 저술하였고, 40대 부터는 실학적(實學的) 저술(著述)에 몰두하였고, 40~50대에는 실학적 저술과 역사 저술이 병행되었다. 그의 유명한 저서 동사강목(東史綱目)은 66세인 1778년에 그의 서문(序文)이 기록되었다.

이에 비하여 그의 관운(官運)은 불우하고도 지진(遲進)하였다. 39세에 겨우 종사랑(從士郎)에 조봉대부(朝奉大夫)가 되었고, 65세에 목천 현감(木川縣監)이 되었다가, 78세에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고 이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3. 여용국전(女容國傳)

그가 80평생에 이룩한 저술은 실로 방대하다. 도

* 서울 · 辛在義齒科醫院, 本學會 副會長

학서(道學書), 경학서(經學書), 사장서(詞章書), 백과전서적(百科全書的) 유서(類書), 사서류(史書類) 등이다. 이들 저술 목록에는 그의 저술이 아닌 비망(備忘)이나 타인의 저서를 필사(筆寫)한 것까지도 포함되었다.

이 여용국전은 처음에 한글로 된 것인데 순암이 한역(漢譯)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자의 화장도구를 의인화(擬人化)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비유한 글이다. 이와 비슷한 글로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가 있는데 이러한 글은 해학적인 것이 그 특색이다.

여용국전(女容國傳)

여용국(女容國)이라는 제국이 있었다. 이나라의 황제는 효장(孝莊)인데 그는 15개의 부속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이 15국의 군주는 염대(염臺)의 일들을 맡아 보았다. 이 염대를 능허대(凌虛臺)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경대(鏡臺)이다. 여용국의 정승은 동원청(銅圓淸)이었다. 동원청의 자는 명경(明鏡)이요, 호는 감선생(鑑先生)인데, 얼굴이 둥글고 맑으며 신력(神力)이 있어 그 광채가 많은 사람을 끌었다. 그는 항상 황제의 곁에 앉아서 황제 얼굴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의관이 바르지 못하면 서슴치 않고 말을 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황제는 그를 아주 사랑하여 언제나 곁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십오국의 신하들을 각각 소개하면 태전(太傅)의 벼슬을 하고 있는 주연(朱鉛)이 있고, 소전(少傅)의 벼슬을 하고 있는 백광(白光)이 있으며, 호치장군(皓齒將軍)에 양수(楊樹)가 있고, 수군도독(水軍都督)에 관정(監淨)이 있고, 무위장군(武衛將軍)에 포세(布洗)가 있으며, 전전지휘사(殿前指揮使)엔 포엄(布掩), 삼군교위(參軍校尉)엔 마령(磨零), 형부시랑(刑部侍郎)엔 방취(芳臭), 총융사(총戎使)엔 윤안(潤顔), 안무사(安撫使)엔 백원(白圓) 등이 있고, 납용(蠟容)은 도지휘사(都指揮使)이고, 섭강(섭강)은 평장군(平將軍)이며, 서연(서연)

은 도어사(都御史)이며, 소쾌(梳快)는 전장군(前將軍)이며, 소진(梳眞)은 후장군(後將軍)이었다.

이상의 15인이 각각 제 임무에 충실하여 정무(政務)에 심력을 경주하였으며 황제(皇帝)도 또한 정치에 관심이 깊어 첫닭이 울면 일어나서 모든 관원들을 능허대로 불러들이는데, 먼저 동승상(銅丞相)을 부르고 다음에 15명의 신하들 차례로 불러 저마다의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로부터 여용국이 크게 다스려져 풍속이 아름다워지고, 법(法)에 질서가 잡혀,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고 듣는 사람마다 찾아오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부터 황제는 점점 교만하고 방탕해져서 차츰 정치에 관심을 잃고 심신(心身)이 게을러져서 능허대(凌虛臺)에서 아침마다 가졌던 조회(朝會)를 폐지했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국정(國政)을 논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승도 자기 집에 들어박혀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황제는 간혹 수군도독 관정과 전장군 소쾌를 불러들이기도 했지만 태전, 주연, 소전, 백광 등은 이미 사직하고 없었기 때문에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었다. 나라 형편이 이쯤되고 보니 국정이 문란할 것은 물론 사방(四方)에 도적의 무리가 날뛰게 되었다.

이때에 도적의 두목 구리공(垢裏公)은 먼저 광이산(廣耳山)을 습격하여 빼앗고, 흑면대왕(黑面大王)이라고 자칭하면서 검정 두루마기를 입고 흑기(黑旗)를 들고 늘 중심지를 습격해 오는 것이다. 15일이 못되어 그는 오악산(五嶽山)을 함락시켰다.

누구보다도 먼저 도적을 격퇴해야 할 정승 동원청은 오랫동안 황제를 뵈지 못해 걱정만 하고 있을 뿐, 황제 앞에 나아가서 긴급한 일을 토의할 만한 체면이 없었다. 시일이 갈수록 도적의 무리는 성하여 흑두산(黑頭山)에는 슬양(슬壤)이 들끓고 아미산(蛾眉山)에는 모송(毛鬆)이 성하여 백석산(白石山)엔 황염(黃染)이 생겨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되

었다.

황제가 하루는 심신이 크게 불안하여 비로소 동승상을 불렀다. 황제를 처음 대한 동승상은 국가의 긴급사태를 아뢰는데, 「오늘날 국세가 위태롭게 되어 도적이 사방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신들이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죄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래어 동정승을 대동하고 능허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니 지방이 황폐하고 흑두산에 잡초목이 무성하여 슬양의 당(黨)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숲속을 제멋대로 쏘다니고, 오악에는 구이공의 대신인 흑기, 흑포, 흑갑병 등이 떼를 지어다니고 백석산 앞뒤에는 황염의 군졸들이 곡구산으로부터 적순관(赤脣關)에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본 황제는 정승과 더불어 토벌의 계책을 궁리하던 참에, 문득 능허대 밑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 외치면서, 「소장이 흑두산을 소탕하여 슬양의 무리를 모조리 잡아오겠습니다」하는 것이다. 하나는 얼굴이 붉고 몸이 구부정하게 생긴 전장군 소쾌이고, 또 하나는 얼굴이 누르스름하고 네모 반듯한 후장군 소진이였다.

효장(孝莊)황제는 기뻐하여 소쾌에게 선봉장을 명하고, 소진에게 후봉장을 명하여 군사를 인솔하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명령을 받고 먼저 소쾌가 일군을 거느리고 흑두산을 습격했다. 다급해진 슬양들이 대항을 못하고 광이산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상림원(上林苑)에 숨기도 하여 소쾌는 그들을 잡지 못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소진이 점두군(點頭軍) 일대(一隊)를 인솔하고 조직 있게 전투를 벌여 슬양의 족속을 소탕했다. 마음에 흡족한 황제는 두 장군에게 상을 하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흑두산은 평정을 보았다. 황제는 지체없이 도지휘사 남용을 시켜 흑두산앞에 진을 치게 하고 도어사 서연을 시켜 흑두산 뒤에 진을 치게 하

여 구이공을 토벌할 것을 의논하는데, 다시 정승이 여쭙기를,

「신이 생각하기에는 구공의 당들이 대단히 성하여 없애기가 그럴 쉽지 않습니다. 만일 한신(韓信)이 용저(龍저)를 패배시키고 지백(智伯)이 진양(晉陽)을 공격하던 계책을 쓰지 않으면 성공을 못할 것입니다. 관원 가운데는 관정(灌井)이라는 사람이 있어 수전에 능숙하니, 그를 채용하여 쓰도록 하십시오.」

황제는 그 말이 옳다고 하여 곧 관정을 불러들여 수군대도독을 명하고 전전지휘사 포임을 시켜 전군 교위를 명하여 참군교위 마령과 함께 구이공을 급습하니 병력이 모자란 그는 물속에 투신하여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때에 다시 무위장군 포세가 적당을 섬멸하고 전과를 보고하니, 황제의 마음은 매우 상쾌하여 삼군에 상을 내리고 이어서 총융사에 윤안과 형부시랑 방취를 명하여 오악을 지키게 하고 안무사 백원은 유격장군으로 명하여 각 성을 순행케 하며, 태부 주연은 상림원을 지키게 하고, 소부 백광은 오악을 전후하여 광이산, 함이산들을 지키게 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한 장군이 문득 소리를 치면서 말하기를, 「소쾌, 관정등은 다 성공하였는데, 소장은 공을 세우지 못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컨대 아미산을 토벌하여 모숭을 없애버리겠습니다.」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평장군 섭강이었다. 첩모와 철갑을 입고 쌍점창(雙點槍)을 들고 아미산을 급습하니 모숭은 낮을 잃고 대항을 못했다. 평장군은 전승고를 올리고 돌아왔다.

이것을 보고 있던 호치장군 양수가 말하기를 「소장은 황염을 토벌하여 백석산성을 평정하겠습니다.」 황제는 그 자리에서 허락했다. 명령을 받은 양수는 흰옷을 입고 이화창(梨花槍)을 들고 일지병(一枝兵)을 앞세웠는데 일지병의 생김새가 허리는 길고 아래는 뾰족하며 위는 평퍼짐하여 기품이 매우

당당하고 늠름했다. 성공에 자신이 있는 일지병인 것이다. 일지병은 먼저 곡구산으로 들어가서 적순관의 좁은 길을 막고 소탕을 시작하니, 성을 유지하지 못한 황염은 패배했다.

황제는 다시 수군 일대를 명하여 양수를 돕게 하였다. 황염은 그 족속을 인솔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모두 자살해 버렸다. 이리하여 백석산도 평정되었다.

효장황제는 다시 정승 동원청을 데리고 능허대에 올라 서서 사방을 살펴보니 화려하고 토지는 윤택하게 되어 전날 태평했던 그 모습을 다시 찾게 되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여 대소관원들을 불렀다. 그들의 공을 치하하여 벼슬을 내리고 싶었던 것이다. 관원들은 일제히 능허대에 모였다. 황제는 그 자리에서 주연으로 화국공(華國公)이 되게 하고 윤안은 이경후를 방취는 상산위를 각각 제수했던 것이다.

이때에 관정이 약간의 불평을 품고 「소장이 만일 소군을 독려하여 구공을 쫓지 않았던들 주연, 백광 등이 성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소장에게는 벼슬을 주시지 않으니 부끄럽습니다.」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늦었다는 듯이 관정은 복성공이 되게하고, 이어서 마령은 수성후를, 양수는 백양후를, 남용은 도평후를, 서연은 운성후를, 섭강은 철성후를 명하여 술을 주어 즐기도록 하였다.

이들 열 다섯 장군은 모두 효장(孝莊)황제의 은혜에 감격하여 말은 바 직무에 충실하였고 이로부터 국가가 태평하였다.

4. 여용국전에 나타난 얼굴 화장의 특색

여용국전에는 화장 도구를 의인화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비유 설명하고 있다. 경대(염대, 능허대), 거울(동원청, 명경, 감선생), 연지(주연), 흰분(백광), 칫솔(양수), 세숫물(관정), 수건(포세), 머리수건(포임), 얼굴 마사아지(마령), 향수(방취), 의류상의 화장품(윤안), 분(백원), 기름 성분의 화장품(납

용), 쪽집게(섭강), 비녀(서연), 열레빗(소쾌), 참빗(소진)같은 화장도구로, 일찍부터 칫닭이 울면 일어나서 여러 화장 도구가 제 임무에 충실할 때 아름답게 제 기능을 다할 것이다.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면 국정이 문란해지는 국가와 같이 얼굴은 더러워질 것이다.

얼굴이 더러워질 때에는 연지나 흰분 같이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으며, 때가 귀에서부터 15일이 못되어 이마, 코, 턱, 좌우의 관골로 퍼지게 된다. 거울을 보지 않으니 더러워졌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날 수록 머리에는 이가 들끓고 눈썹에는 더벅머리가 성하고 치아에는 치태가 생기게 된다.

더러워진 상태를 깨닫고 경대를 바라보니 머리는 흐트러지고 이가 다니고 있고 이마, 코, 턱, 좌우의 관골에는 때가 끼여 있었다. 치아의 앞뒤에는 치태가 치아와 치은 이행부부터 입술까지 차있었다.

붉은 색의 구부러진 열레빗과 누르스름하고 네모반듯한 참빗으로 머리를 빗고 이를 잡고, 기름을 바르고 비녀를 꽂았다.

때는 계책을 쓰는 것과 같이 머리수건을 쓰고 물로 얼굴을 문지르고 수건으로 닦았다. 의류상의 화장품, 향후, 분, 연지, 흰분으로 화장하였다. 쪽집게로는 눈썹의 더벅머리를 뽑았다.

치솔로는 치아와 치은 이행부부터 입술까지의 치태를 제거하고 물로 행구워 내었다.

윤택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후 여러 화장 도구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도록 하였다.

5. 치의학적인 고찰

1. 용어 해석

호치장군(皓齒莊軍) 후에 백양후(白陽侯)라는 양수(楊樹)는 칫솔로써 버드나무로 만들었으며 그 형태는 허리는 길고 아래는 뾰족하며 위는 평평하며 치태를 제거하기에 편한 모양이었으며 배나무

소동치치치치치

로도 만들 수 있었다.

백석산(白石山)은 치아를 말하며 백석산성(白石山城)은 치열을 말한다.

곡구산(谷口山)은 치아와 치은 이행부를 말하며 적순관(赤脣關)은 입술을 말한다.

오악산(五嶽山)은 이마, 코, 턱, 좌우의 관골을 말하며,

황염(黃染)은 치석과 치태를 함께 말한다.

2. 병리 및 치료

아침마다 가졌던 조회를 폐지할 때 백석산에 황염이 생긴다 하는 것은 치아 주위에 치태가 생기는 원인을 칫솔질과 연관시켜 생각하였으며, 황염이 곡구산과 적순관까지 있다 하는 것은 구강내에서 널리

치태가 퍼지는 경우를 말한다.

황염의 제거에는 뾰족하고 평퍼짐한 양수로써 편한 모양으로 만들었다하니, 끝이 뾰족한 기구나 치간 칫솔과 칫솔의 역할을 한 양수가 아닌가 한다. 황염의 제거에는 물의 도움도 필요로 하였다.

6. 결론

여용국전(女容國傳)은 영, 정조 때 실학자의 한사람인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이 한역한 글로써 여자의 화장도구를 의인화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비유한 것이다. 이글에서 당시의 일반화된 치의학적인 해부와 병리와 처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신일치과기공소

SIN IL
DENTAL
LABORATORY

대표 손영수

TEL. 756-2875 ~ 6

773-3949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83-1 (광풍빌딩 6층)

原 著

西域에 關한 醫史學的 基礎調查 第4報

李 漢 水

VII. 韓國에의 西域齒科醫藥의 傳來 概觀

광의(廣義)의 서역의 치과의약(齒科醫藥·齒科用本草) 내지는 치과의약적 요소 또는 치과의학 분야를 포함한 그들의 의학사상이 한국(한반도)으로 전래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는 이미 수천 년전이라고 현재까지의 갖가지 연구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헌적인 고찰을 통해 볼 때에는 일단 수천 수백 년전이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전래되기 시작한 때는 한국(한반도)의 고조선 시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삼국 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는 서역의 그것이 주로 불교 경전을 통해 전래되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 수용된 고대 인도의 의학사상은 고대 회랍의 의학사상과도 관련을 지닌 것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현재까지는 거의 정설이다.

이제 한국의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에 전래된 서역의 그것을 고찰하면 크게는 다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고대 인도의설인 사대부조병리설(四大不調病理說)의 전래.
2.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 발달되어 이어 고대 인도에서도 발달되었던 연금술의 전래.
3. 중국의 남북조 및 수·당대에 주로 비단길 그리고 그 일부는 해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던 서역 치과의약이 다시 삼국 및 통일신라로 전래.
4. 당대(唐代)의 중국 본초서적(本草書籍)을 통한 고대 회랍의 의약적 지식의 전래.

한국 고려시대에 전래된 서역 치과의약 관계는 크게 다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그 초기에 있어서는 고려에서의 불교의 흥성으로 계속 더욱 서역의 치과의약적 영향을 받았고, 또 송(宋)을 통해서도 역시 서역의 그것은 계속 전래.
2. 그 중기에는 송상(宋商·宋商人)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서역 치과의약의 전래는 증대되었고, 한편 아라비아 상인들의 직접 왕래가 빈번해져서 그들을 통해서도 서역의 치과의약은 다시 전래.
3. 그 말기에는 고려와 원(元)과의 국척적(國戚的)인 특수한 관계로 원을 통해서 많은 서역의 치과의약은 계속 활발히 전래.

원은 아라비아 및 페르시아의 의사들을 그 조정에서 중용하였기에 그 결과는 고려의 치과의약에도 서역적 요소를 많이 영향받게 하였다고 추찰된다.

원의 국력이 쇠퇴하면서는 중국대륙 동해안의 주권자가 고려와 친교하며 교역하길 희망하여, 그들이 서역의 치과의약을 포함한 여러 의약품을 고려 조정에 헌상하였기에 그것을 통해서 고려는 서역의 치과의약적 지식을 더욱 얻게 되었다.

4. 유구(琉球), 삼라국(暹羅國), 마팔아국(馬八兒國·印度東南海岸 所在) 등에서도 고려 조정에 치과의약을 포함한 서역의 각종 의약을 헌상하였기에 그에 관한 지식도 다시 전래되었다.

조선시대에 전래된 서역 치과의약 관계의 것으로는 다음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그 초기에는 유구(琉球)의 상인들이 아라비아를 위시한 동남아 제국의 의약을 중계 무역하여, 조선은 그들을 통해 서역산 의약의 전래를 보았고, 또 일본 상인들도 역시 서역산 의약과 동남아 각지의 의약을 중계무역하여 조선에는 그들의 손을 거쳐 서역의 의약에 관한 지식이 대략 16세기초까지 전래.
2. 그 중기에는 명(明)과 일본을 거쳐 서역의 의약을 조선은 계속 접할 수 있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침으로 일본과 명(明)을 통해 조선으로는 새로운 서학사상(西學思想)에 관련된 해외의 의약적 새로운 지식과 문물이 전래.
3. 그 말기에는 중국을 통해 한역(漢譯)된 의서들이 전래.

그 새로운 의약적 지식은 당시의 국내사정으로 단지 일부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뿐, 실지의 임상치료 분야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었다.

한국(한반도)에 문헌상으로 광의의 서역의 치과의약적 지식이 전래된 때는 372년 불교의 재래와 그 때를 함께 한다. 그런데 그 이후 계속 전래된 그것이 과연 한국 고유 전통치과의학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연구되지 못했다.

한국의 전통치과의학 관계 의서로서 최고(最古)인 「향약구급방」에는 서역산 호도(胡桃)를 치과 임상에서 치료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문헌상 최초인 명확한 치과 관계 자료이다. 때는 13세기 후반이다.

이어 「동의보감」이 간행된 17세기초에 이르러서는 한국이 서역 치과의약의 갖가지 영향을 여러 면에서 그 고유의 전통치과의학과 융화시키며 발달시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이 꾸준히 서역의 의약 내지 의학사상을 수용 동화시킴에 있어, 16세기까지는 주로

그것이 중국을 거치면서 일단 중국화(中國化)된 것을 받아드린 흔적이 농후하나, 「동의 보감」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지향한 감마저 준다. 저자는 이 부분의 연구는 금후의 새 연구 과제로 계속 주목할 점이라 생각한다.

VIII. 西域出土 醫藥關係 各種資料에 關한 基礎的 知見

서역의 의약관계 연구자료로서 둔황(敦煌·통황)에서 방대한 물량의 출토품이 소개되기 시작한 때는 20세기로 들면서 이다. 그것은 무려 수만 점에 달한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불전(佛典)이다. 의약 관계자료는 그중의 불과 1% 미만이다. 의약 관계의 것은 중국의 경우 한대(漢代)로부터 송대(宋代) 초기에 이르는 것들이다. 그래서 비록 그 수량은 적지만 그 각종 출토품은 그 원형을 거의 그대로 간직한 것이기에 학술적 영구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점은 물론이고, 서장 교유의 의약 발달의 내용과 다시 나아가 서장을 중심으로 삼은 동서 의약의 상호 접촉상 내지 융화상을 밝혀줄 점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어쩌면 이들 출토품의 연구는 장차 현재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가 혹은 그것이 변형 내지 잘못 인식되었던 부분을 크게 바로 잡을 계기까지 될지도 모르겠다.

이 분야 연구의 입문서적이면서도 거의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정리된 가장 좋은 것에는 미끼 사카에(三木 榮)의 「서역출토 의약관계 문헌 총합 해설 목록」(西域出土醫藥關係文獻總合解説目録・東洋學報, 第47-1卷, 京大文科學研究所, 1964)이 있다.

미끼 사카에는 자신이 수집한 방대한 여러 자료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8개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한 해설을 가하면서 소개하였다.

1. 의서

- 1). 방서(方書)
- 2). 오장(五藏・五藏論書)
- 3). 맥서류(脈書類)
- 4). 구서(灸書)

2. 본초서

3. 불교의 방서

4. 도교적 의방서

5. 의약관계 문서

6. 목간류(木簡類) 중의 의약자료

7. 민족 고어(古語) 문서 중의 의약자료

8. 미이라, 기타, 그리고 추보(追補)

이상의 각 조목별 출토품의 자료 총수를 보면, 의서목의 방서 34종, 오장 6종, 맥서류 7종, 구서 4종으로 의서 관계의 자료 총수는 51종이다.

본초서 관계의 자료는 8종이며, 불교의방서의 자료는 16종이고, 도교적 의방서의 자료는 5종이다. 그리고 의약관계 문서의 자료 수는 14종, 목간류 중의 의약자료는 4종, 각 민족의 고어(古語)로 기록된 문서 중의 의약자료 해설과 소개에 있어서는 역시 다수의 자료들을 기재하면서 각 민족 고어의 해득이 연구상 필수적인데 그 수는 한문(漢文)을 포함해 약 14개의 언어라고 자세히 보고하였다.

이어 미이라 조목에서는 그 출토된 수가 12체라 소개하며, 역시 그 해설이 있고, 다시 벽화(壁畵)에 관해서도 소개하였다.

추보(追補)의 조항에는 소비에트의 Kozlov탐험대가 발굴 보고한 해당 자료 7종이 추가되었다. 역시 여기에도 그 자세한 해석이 곁들었다.

미끼 사가에는 끝으로 아직도 1964년 현재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소비에트 등에 소장된 여러 자료들 중에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당한 수의 의약관계의 자료가 있다고 하였다.

IX. 西域의 醫藥研究에 必要한 基礎的인 文獻

다음의 문헌 번호 4에 기재된 S와 P는 각기 대영박물관 소장인 Stein문서와, 파리의 국립도서관 소장 Pelliot문서를 뜻한다.

문헌의 번호 순서에는 별 뜻이 없다. 곧 무순이라 하겠다. 1~45는 미끼 사가에의 논문에 소개된 문헌이다.

1. 三木榮, 東西醫學의 源流와 交流 및 그 小考, 「醫學研究所」 第5號. 1962
2. 那波利貞, 唐朝政府의 醫療機構와 民庶의 疾病에 對한 救濟方法에 關한 小考 「史窓」 第17, 第18. 1960
3. 中尾萬三, 自筆 페리오敦煌文書 노트북, (武川藥品圖書館藏)
4. 「敦煌遺書總目索引」 (商務印書館刊, 1962) 中の 劉銘恕編 斯坦因劫經錄S 및 王重民編 伯希和劫經錄P
5. 「巴黎圖書館敦煌寫本書目」, 法國伯希和編·陸翔譯, (北平圖書館 館刊 7-6, 8-1, 1933, 34)
6. 小笠原宣秀, 吐魯蕃出土의 宗教生活文書, 「敦煌 吐魯蕃 社會經濟資料 (下), 西域文化研究 第三」 中, 1960.

7. 田源次, 普魯西學士院所藏 中央亞細亞出土醫方書四種, 「支那學」第7卷 第4卷, 1935
8. Maspero H ; Les Documents chinois de la troisieme expedition de Sir Aurel Stein en Asie Central. London. 1953
9. 岡西爲人, 「宋以前醫籍考」, P.418—420, 北京人民衛生出版社刊, 1958
10. 官下三郎, 張仲景五藏論에 대하여, 「漢方の 臨牀」第6卷, 第4號, 1959
官下三郎, 敦煌本「張仲景五藏論」校譯註, 「東方學報」第三十五冊, 1964
11. 三木榮, 스테인敦煌文書 No. 202의 現傳宋板「傷寒論」辨脈法 및 「金匱玉函經」辨脈과의 比較, 付 No. 5614 & 6245 「平脈略例」, 「漢方の 臨牀」第6卷 5號, 1959
12. 陳可冀·陳維養, 關於敦煌石室藏傷寒論辨脈法殘卷, 「人民保健」, 1959
13. 中尾万三, 食療本草의 考察, 「上海自然科學研究所 彙報」第1卷 第3號, 1930
14. 羅振玉, 食療本草殘卷, 付王國維·唐蘭·羅跋, 「敦煌石室碎金」, 1925
15. 中尾万三, 唐新修本草의 解說, 「仁和寺藏新修本草殘卷影印」中, 本草圖書刊行會刊, 1936
16. 王重民, 「敦煌古籍叙錄」, 卷三 子部 上, 商務印書館刊, 1958
17. 小川琢治, 支 那에 있어서의 本草學의 起源과 神農本草經, 「史林」第4卷 第4號, 1919
18. 羅振玉, 開元寫本草集注序錄, 「吉石庵叢書」第一集, 1916
19. 范行準, 敦煌石室六朝寫本本草集注序錄殘卷校註, 「中西醫藥」第3卷 第1·3·4期, 1937
20. 渡邊幸三, 陶弘景의 本草에 對한 文獻學的研究, 「東洋學報」京都大 第20冊, 1951
21. 渡邊幸三, 敦煌出土草集注序錄의 文獻學의 性格, 「日本東洋醫學會誌」第4卷 第3號, 1954
22. 京都國立博物館編, 「醫學에 關한 古美術聚英」中の 第40 本草集注序錄殘卷, 1955
23. 黑田源次, 六朝古寫本神農本草經의 殘欠에 대하여, 「松崎先生還曆記念論文集」中, 1936
24. Giles L. ;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Chinese Manuscripts from Tunhuang in the British Museum, 1957, London
25. 藤枝晃, 敦煌寫經의 字形態, 「墨美」97, 1960
26. 那波利貞, 敦煌發見 古寫錄本 唐의 鄉貢進士王敷撰의 茶酒論의 研究, 「甲南大學文學會論集」第8號, 1958
27. 仁井田陞, 吐魯蕃出土의 唐代取引法關係文書, 「敦煌 吐魯蕃 社會經濟資料 (下), 西

域文化研究 第三」中, 1960

28. 小笠原宣秀, 大谷探險隊 將來 吐魯蕃出土古文書素描, 同上書(下), 1959
29. 西村元佑, 唐代敦煌差科簿의 研究, 同上書(下)
30. 姜亮夫, 「敦煌」第11 科學的材料, 上海古典文學出版社刊, 1956
31. 長澤和俊, 「樓蘭王國」, P. 116, 184. 角川新書, 1961
32. 石濱純太郎, 西域古代語의 佛典, 「中央아시아 古代語文獻」, 西域文化研究 第四, 1961
33. 泉芳璟, 印度古典의 醫方에 대하여, 「宗教研究」新 第4卷 4號, 1927
同氏, 印度의 醫方及 藥物에 관한 圖書의 解說로서, 「佛教研究」第2卷, 第4號, 1920
34. "Catalogue of Hoernle Library". Otani University Library
35. Schwentner, E.; Tocharische Bibliographie, 1890—1958, Akademie-Verlag, Berlin, 1959
36. Filiozat, J.; Fragments de Textes Koucheens de Medecine et de Magie, 1948, Librairie d' Amerique et d' Orient, Paris
37. Couvreur, W.; Die Fragmente Stein ch. 00316a² und Hoernle H149, 47 und 231,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72. Band, 3 · 4 Heft, 1955 Göttingen
38. 井口泰淳, 도가라語 及 우텐語의 佛典, 「中央아시아 古代語文獻」西域文化研究 第四別冊, 1961
39. 中央아시아 古代語文獻, 「西域文化研究」第四, P. 171~254, 1961
40. von Gabain, A.; Türkische Turfan-feste VIII, 1945, Berlin
41. Veith, I.; Medizin in Tibet, 1960. Auflage von Bayer
42. 芳村修基, 티베트 醫學文獻의 殘葉, 壽命藏八科의 譯註, 「中央아시아 古代語文獻」西域文化研究 第四, 1961
43. 眞田有美, 梵文 佛典資料, 同上
44. 清野謙次, 「大谷氏 及 실크로드 中央亞細亞發掘의 미이라에 대하여」, 關東博物館刊, 1931
45. 喜々津恭胤, 中央亞細亞發掘의 미이라의 一頭蓋骨에 대하여, 「人類學雜誌」第46卷 第4號, 1932
46. 護雅夫, 「실크로드와 東西文化의 交流」(실크로드事典 所載), 芙蓉書房, 日本, 1975
47. 羽田亨, 西域文明史概論, 弘文堂, 日本, 1931
48. 羽田亨, 西域文化史, 座右寶刊行會, 日本, 1948
49. 松田壽男, 中央아시아史, 弘文堂(아테네文庫, 日本, 1954

50. 松田壽男, 砂漠의 文化, 中央公論社(中公新書), 日本, 1966
51. 佐藤長, 古代 티베트史(上下卷), 東洋史. 研究叢刊 5~2, 京都大學校 文學部內 東洋史研究會, 1959
52. 田中一呂 譯, 西藏・過去와 現在, 生活社, 日本, 1940
53. 東洋史史料集, 平凡社, 日本, 1955
54. 溫仁, 支那中世醫學史, 科學書院, 日本, 1981
55. 日本書紀(上下), 日本古典文學大系 67, 岩波書店, 日本, 1967
56. 杜甫全詩集(第1卷), 日本圖書센터, 日本, 1979
57. 木崎國嘉, 시르크로드의 醫學 特히 蒙古, 티베트의 라마醫學, 大手前女子大學論叢 11, 日本, 1977
58. A. Tom Grunfeld, The Making of Modern Tibet, Zed Books Ltd. London, U.K. 1987
59. Hans Much, Hippokrates der Grosse, 1926
60. Heuburger, Geschichte der Medizin, Bd. I. 1906
61. 아시아歷史研究入門(全5卷), 同朋舍出版株式會社, 日本, 1984
62. 醫學史論文資料索引, 中醫研究院 醫史文獻研究室, 日本, 1980
63. 三木榮, 西域出土 스테인・페리오・大谷, 其他醫藥關係文書概要目錄稿(아시아歷史研究入門 第3卷 中國 III 所載), 日本, 1984
64. 陳邦賢, 中國醫學史(改訂增補版, 中國文化史叢書, 台灣, 1970
65. 劉伯驥, 中國醫學史, 華岡出版部, 台灣, 1974
66. 賈得道, 中國醫學史略, 山西人民出版社, 中國, 1979
67. 西藏研究, 中國邊疆歷史語文學會刊, 各大書局, 台灣, 1960
68. 瀧川龜太郎, 史記會注考證, 宏業書局, 台灣, 1974
69. 仁壽本二十六史(全書 七十冊), 「舊唐書」(全二冊), 正大印書館, 中國, 1971
70. 唐書經籍藝文合志(中國學術名著 第六輯, 中國目錄學名著 第三輯 第2冊), 世界書局, 台灣, 1976
71. 錢大昕撰, 廿二史考異(下) 卷四十五, 商務印書館, 台灣, 年代?
72. 三國志(全一冊), 仁壽本二十六史(全書七十冊), 成文出版社, 台灣, 1971
73. 晁承鈞, 校註, 諸蕃志 校註, 商務印書館, 台灣, 1963
74. 漢隋藝文經籍志(中國目錄名著 第三輯), 世界書局, 台灣, 1973
75. 劉北祐 撰, 宋史藝文志 史部佚籍考(上下), 台灣, 撰者印行, 1973
76. 新唐書(全三冊), 成文出版社, 台灣, 1971
77. 王雲五 主編, 崇文總目(國學基本叢書), 商務印書館, 台灣, 1967

78. 金斗鍾, 韓國西醫學史(韓國現代文化史大系 III 科學·技術史 所載), 高麗大學校附設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77
79. 李鍾馨, 韓國東醫學史(同上前項 文獻 所載), 1977
80. 金斗鍾,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韓國研究叢書 第9輯), 韓國研究圖書館, 1960
81. 金勇男, 새로 發掘된 德興里 高句麗 壁畫에 對해(辛澄惠 譯), 朝鮮學報 第95輯 1977
82. 都有浩, 고구려 석실 봉토분의 유래와 서역문화의 영향, 문화유산(제 4), 1959
83.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第3版 3刷), 一志社, 1987.
84. 金基雄, 한국의 원시·고대미술(正音文庫 50), 正音社, 1974
85. 崔淳雨, 韓國美術五千年, 玄岩社, 1978
86. 李健茂, 韓國美術史(金屬工藝), 韓國藝術史叢書 II, 藝術院, 1984
87. 三木榮, 西域出土醫藥關係文獻總合解說目錄, 東洋學報 第47卷 第1號, 日本, 1964
88. 三木榮, 西域出土醫藥漢文文獻에 대하여, 日本, 醫譚 35, 日本, 1967
89. 赤堀沼, 武威漢代醫簡에 대하여, 東洋學報 50, 日本, 1978
90. 周迅 編, 論古代中國 1965~1980 日本文獻目錄, 書目文獻出版社, 中國, 1983
91. 長澤和俊, 東西交涉史研究文獻目錄, 文部省科學研究費補助金 研究成果報告, 日本, 年代?
92. 東洋學文獻類目(年刊), 9 科學, 4 醫學·藥學·博物項(1985年度까지 刊行濟),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日本, 1985
93. 醫學中央雜誌(旬刊, 年間累積索引), 漢方·漢方藥·東洋醫學·醫學史 項目), 醫學中央雜誌刊行會, 日本, 1986~87
94. 醫學中央雜誌累積版(1973.9~1978.10) 시리즈 24(東洋醫學·醫史學·社會醫學·法醫學 項目), 醫學中央雜誌刊行會, 日本, 1978
95. 雜誌記事索引 科學技術編, 季刊, 16卷 1號(1965, 1~), 東洋醫學項目, (1979, 1~1983, 12까지의 것은 “雜誌記事索引” 醫學藥學篇으로서 刊行), 日本, 1984

특별히 학술적으로 보다 깊이 연구코자 하는 경우는, 저자로서는 다음 3가지의 문헌이 매우 큰 도움을 줄줄로 안다.

1. 袁同體·渡邊宏 合編, 新疆研究文獻目錄 1886~1962(日本語), 日本, 1962(여기에는 14개 논문의 제목이 수록되었다. 그것은 1896년부터 1955년까지의 것들이다.)
2. 鄭阿財·朱鳳玉 編, 敦煌學研究論著目錄, 漢學研究資料及服務中心, 中國, 1987(여기에는 49개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그것은 1916~1983년까지의 것이다.)
3. 敦煌文獻研究論文目錄, 敦煌文獻連絡委員會, 東洋文庫, 日本, 1959(여기에는 19개의 문헌이 수록되었다. 그것은 1919~1957년까지의 것들이다.)

表紙것의 說明 및 學會의 活動事項

표지의 컷으로 선택해본 것은 「救急簡易方諺解」의 일부분이다. 표지에 채택한 본서가 과연 어느 연대의 간행인지는 미상이다. 그 최초의 편자는 허준(許浚)으로서 1607년 간행이라 추정되는데, 이 컷에 사용된 것이 어느 때의 것인지는 약간의 고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판단키 힘들줄 안다. 1900년대 초의 것이리라 우선은 짐작된다. <李 漢 水>

3월이사 및 전회장단 연석회의

날 짜 : 91. 3. 6 아침 8시

장 소 : 뉴내자호텔

안 건 : 1. 익한수 중신명예회장의 특강.

날짜 · 장소는 추후 통보

2. 각 치대 치과의사학 강좌 실태조사

3. 이사회는 매월 개최키로 함.

참석자 : 이한수, 김정균, 이병태, 박승오, 신재의, 홍예표, 김성남

학술집담회

날 짜 : 91. 4. 10 오후 7시 30분~10시 30분

장 소 : 서울시 치과의사회 신용협동조합 회의실 3층(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연 제 : Silk-road를 통한 치과의약 전래사

연 자 : 이한수

4월이사 및 전회장단 연석회의

날 짜 : 91. 4. 30 아침 8시

장 소 : 뉴내자호텔

안 건 : 1. 동의보감연구-김성남 총무이사.

2. 이사회를 매월 마지막 화요일로 정함.

3. 학술 이사로 홍예표 이사를 선임.

5월 이사 및 전회장단 연석회의

날 짜 : 91. 5. 28 아침 8시

장 소 : 뉴내자호텔

안 건 : 1. 학회지 내용에 기획기사 및 대담원고 게재

2. “北東延邊 그리고 白頭山” 이병태회장의 중국기행기 배포

3. 1991년 12월발행 학회지 원고준비 독려

6월 이사 및 전회장단 연석회의

날 짜 : 91년 6월 25일

장 소 : 뉴내자호텔

안 건 : 1. 12월발행 학회지의 원고모집 등 실제 제작을 부회장 총무단에게 하도록 함.

2. 中國口腔醫學史考 周大成 著 소개.

3. 7월 이사회는 쉬기로 함.

4. 회장(李丙台)의 북한주민 접촉 허가 신청서를 통일원에 접수시키기로 함.

□역대회장□

1960. 10. 7~1974 李漢水

1975~1981 李德一

1982~1983 李漢水

1984~1988 金正均

1989. 6. 13~현 李丙台

중신명예회장

이동섭

이덕일

전 회장 이한수

직전회장 김정균

□임원명단□

회 장 이병태

부회장 박승오

신재의

이 사 김지호

허정규

배광식

홍예표

감 사 이시우

임경빈

1991년 6월 25일 인쇄

1991년 6월 30일 발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12, No. 1, 1991

제12권 제1호 통권13호

발행인 : 이 병 태

Publisher : Lee, Byung-Tae

편집인 : 김 성 남

Editor in Chief : Kim, Sung-Nam

<비매품>

발행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Address Yung-Doong-Po,

대한치과의사학회

C.P.O.Box 41, SEOUL,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3동 409-1